

# 錄 取 錄

녹 음 일 시	2021년 09월 01일		
녹 음 장 소	회사 사무실 내		
녹 음 파 일	사무실대화1-편집본 거절의사		
녹 음 자	이예원		
대 화 자	이예원 (고소인) 장우영 (피고소인)		
작 성 일 자	2019년 12월 10일	녹 취 서 량	표지 외 2매
<p>속 기 사 : 신소미 (자격증번호 : 15-G1-RT0018) </p> <p>나랏말 속기사무소 </p> <p>본 녹취록은 의뢰받은 녹음내용과 상이 없이 기록되었음을 증명함</p>			
註	<p>① 『 *** 』은 청취불능 부분임                  ② 본 녹취서는 속기사의 허락 없이 정정할 수 없음                  ③ 원본(직인)이 아닌 사본은 책임을 지지 않음                  ④ 녹취록의 녹음일시, 장소, 대화자의 설정은 의뢰인의 구술에 의해 작성됨</p>		

## 녹취록

- 이예원 : 이렇게 입을 맞추시고 그러시고도 그렇게...
- 장우영 : 아니 그러니까, 그 이유를 내가 말했잖아. 그, 식당 갔을 때 내가 저번에 그 행동을 하는데
- 이예원 : 제가 여기서 분명히 이성으로 본적 없다고 말씀드렸고 대표님도 알겠더라고요. ‘알았다. 너 생각 알았다.’ 그렇게 하셨잖아요. 그렇게 하시고 나서 하신 행동이었잖아요, 그 행동이.
- 장우영 : 나는 그런데 그런 건 있어. 내가 이 대리한테 진심으로 내가 이 대리를 좀 호감을 가지고 있었잖아, 어쨌든 관심을. 그래서 의사표현을 했고, 이 대리한테. 그런데 이 대리가 내 마음을 나는 어느 정도 받아준 줄 알았던 말이지. 그래서 나는 그래서 우리가 저기, 경정공원(미사조정경기장)도 놀러가고 자전거도 타고 외부에서 따로 만나고 이런 행동이 나는 ‘아, 이 대리가 나한테 관심이 있었구나.’ 이렇게 나는 착각을 했던 말이야.
- 이예원 : 대표님, 제가 항상 (답답하다는 듯한 목소리로) 아,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입사한지 얼마 안 됐고 대표님이시잖아요. 그리고 저는 진짜 순수하게 받아들였지 그거를 무슨 그때도 지난번에도 저쪽에 몽촌토성 가게에 가서 밥 식사했을 때 대표님이 저한테 “이렇게 자주 만나다가 뭐, 너를 여자로 본다.” 이런 얘기하실 때 “제가 그럴 일 없을 거다.”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, 그때. 그래서 대표님도 “응, 그렇지. 지금 나도 아니야.”

뭐 이러셔서, 이러셨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도 저한테 뭐 고백하시고, 그래서 제가 분명히 “그냥 못들은 걸로 하겠다.”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는 계속 어쩔든 선을 긋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님이 오해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.

- 녹 취 끝 -